



공·금·합·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사 양 ●

Q 분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만사 바닥의 절반은 시멘트이고 모든 앞뒤에는 슬랫형 태입니다. 태어난지 하루 정도만 지나도 자돈들이 발바닥에 상처가 생기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바닥이 뜨거워서 그런가 하고 분만 후 몇 시간 후에 소등을 하는데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는지 자돈들이 아파서 걸음을 뒤통거리고 방치하면 관절염이나 발톱이 부어오릅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컨설팅&클리닉 대표>
몇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분만사의 특정 돈방 바닥이 조악할 경우(슬러리 구멍 크기가 너무 넓은 경우도 포함)
• 해당 돈방의 포유자돈은 계속적인 발병을 한다.
• 이런 경우 돈방바닥을 보수하고 수세소독한 후 사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바닥에 문제가 있는 돈방에서만 속발한다.
• 슬러리 부분의 플라스베드나 철망이 포유자돈에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교체하여야 한다.
나. 각종 외과처치가 비위생적일 경우

• 단미기와 견치기를 한가지로 사용한다거나 견치기 하나로 많은 복을 처리한다거나 하는 경우, 여러가지 주사시 비위생적으로 주사하는 경우 등, 원인균이 편도선을 타고 침입할 수 있다.
다. 모돈으로부터 수직감염을 받을 경우
• 주로 모돈의 호흡을 통해 감염받는다.
• 심한 경우 모돈이 분만사 입식시부터 약 2~3주간 적절한 항생제를 치료량을 사료첨가한다.

Q 자돈 백신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백신에 관하여 상담을 해주고 가셨는데 저희집에 남은 백신이 많아서 해오던 AR백신과 마이코플라스마 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자돈사에서 (4주이유) 멀쩡한 돼지들이 요즘 들어서 계속 죽어나옵니다. 가스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사료문제도 아닌 것 같고 환기도 문제가 없는 것같이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컨설팅&클리닉 대표>
이유자돈사(4주 이후)에서 멀쩡한 돼지들이 죽어 나온다고 하셨는데, 여러마리 돼지가 죽을 정도면 멀쩡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폐사는

자돈사에서 일어나도 분만사에서부터 온도관리나 충분한 젖 등 헛점들이 누적되어 자돈사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돈사에서 환기만 신경쓰다보면 온도관리나 셋바람 등으로 호흡기질환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나 느낌상으로도 일교차나 온도편차, 습도관리 등이 잘 안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백신만으로 해결은 안될 것이며 혼합백신은 거래하는 약품상에 문의하시면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 번식 및 육종 ● ●

Q 보통 종돈장에서는 순종과 교배후에 F1(웅돈, 후보돈)을 일반 비육농장에 분양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F1을 교배시키면 F2가 된다고 합니다. 순종과 순종, 순종과 F1, 그리고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과의 교배 후에 F1, F2, F3 등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A <심금섭 천안연암대학 교수>
F1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개의 품종을 교배하여 만든 돼지를 F1 즉 1대 교잡종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돈장에서 F1을 생산하는 것은 랜드레이스(L)와 대형요크셔(Y)를 교배시켜 LY또는 YL의 암돼지를 생산하여 비육농장에 후보돈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만들어진 LY또는 YL 수돼지는 비육처리 합니다. 백색계인 랜드레이스와 대형요크셔를 이용하여 F1후보돈을 만드는 이유는 랜드레이스와 대형요크셔를 교배했을 때 잡종강세 효과가 커져 산자수와 포유능력이 우수한 후보돈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F1후보돈에 일반적으로 듀록(D) 수컷의 정액 또는 수컷으로 자연교배를 하여 3원교잡종인 LYD가 생산되며 이때 만들어

진 LYD암돼지나 수돼지를 F2라고 부릅니다. 만약 비육돈으로 생산된 F2암돼지를 후보돈으로 선발하여 번식에 이용하여 생산된 자돈들은 F3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 질 병 ● ●

Q 분만모돈의 분만간격 시간이 지체되어 손을 삽입하여 보면 자궁경부부터 질 입구까지 물질이 잡힙니다. 처음에는 몇 개만 잡히다가 분만이 진행될수록 그 수와 크기가 커집니다. 이로 인해서 질구가 좁아져 자돈의 만출이 힘들어지고 분만 종료 후에도 이를 자돈으로 인식하는지 계속적으로 진통을 합니다. 더운 여름철 모돈의 폐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생산차는 초산돈에서 노산돈까지 넓게 나타나며 발생비율은 10%정도 됩니다. 원인과 예방대책을 부탁드립니다.

A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임신말기 분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의 감염(PRRS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질병의 감염을 막거나 예방접종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만시 자궁의 내벽은 박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약해져 있어 분만이 진행되면서 내벽의 물질상태는 물리적 자극에 의하여 점점 심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자궁수축을 도와주는 에스트로젠 호르몬의 이상, 골반골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았거나, 모돈의 지나친 비만, 또는 쇠약이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돈의 임신중 체형관리가 여름철 분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만의 지연은 이후 후산의 배출지연으로 감염이 있을 경우 여름철에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분만지연의 경우 손으로 자돈을 끌어냄으로서 자돈의 생

존율을 높이는데 다소 도움은 되나 이런 경우 모돈의 자궁손상이 더욱 심해져 모돈의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산도의 손상은 이후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분만 후 폐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항생제 주사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시설 및 환경 ●●

Q 옥수수대로 만든 섬유질 펠릿사료를 가지고, 분쇄할 경우 축사 바닥에 톱밥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분 : 옥수수대, 수분 : 10.8%, 직경 : 10~11mm입니다.

톱밥과의 경제성 비교는 하지 않은 채, 축사환경(온도, 습도, 병원균)과 가축건강(발바닥, 피부)을 고려한 가능성을 좀 알고 싶습니다.

A <유재일 한국양돈컨설팅그룹 위원장>
옥수수대를 분쇄하여 양돈에서 깔짚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톱밥자료(목재)와 옥수수 대의 식물특성을 가지고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톱밥 자료가 되는 나무는 연년생이고 옥수수대는 단년 식물이므로 단단하기가 다르고 비중이 높은 목재는 비중이 낮은 목재에 비하여 흡수력이 낮은 것은 물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대를 물에 넣어보면 단단한 걸쭉대기도 흡수를 합니다. 또 옥수수의 속은 굳은 목질이 아니고 섬유와 목질의 중간 정도임으로 어떤 톱밥보다도 흡수력이 높을

것입니다. 실험을 하여 보려면 톱밥과 옥수수 속부순 것을 같은 무게로 달아 거즈 주머니에 넣어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주머니 밖으로 물방울이 안 떨어질 때까지 두었다가 달아보면 쉽게 흡수력 차이를 짚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분쇄를 톱밥의 크기로 하였을 경우는 물리적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양돈농가 상담 ●●

Q 농장과 농장주변을 꾸미려고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듣기로는 양봉에 관련된 밀원수를 심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청방법과 지원비용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이광호주임>
올해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양봉산업육성'에 따라 올해도 밀원수를 심으면 묘목 가격의 50%를 정부 지원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대표적 밀원수로 헛개나무, 엄나무, 수유나무가 있고 기타 다른 밀원수도 보조가 가능합니다. 각 밀원수의 정부 지원금은(묘목 가격의 50%) 헛개나무 350원/그루, 엄나무 675원/그루, 수유나무 375원/그루입니다. 밀원수(묘목) 신청수를 작성 후 (사)한국양봉협회로 신청을 하고, 묘목 가격 중 자부담 부분을 양봉협회로 송금하면 됩니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너도먹고 나도먹는 고품질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하자